

# ‘킬러콘텐츠’ 개발 등 관람객 280만명 모은다

문화전당·효문화원 올 사업계획 뭉 댔었다

박씨 부인전 모티브 액션 판타지 ‘REX’ 4월 공개

창·제작 랩 확대…수영대회 성공 개최 이등식 차량 공연

개관 4주년을 맞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올해를 ‘성과가 눈에 보이는 해’로 정하고 관람객 280만명 목표로 ‘킬러콘텐츠’ 개발 등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전당이 공개한 4대 정책 방향에는 ‘실질적 문화발전소’, ‘대중전환적 문화향유 공유’ 등 4개 정책 방향이 포함돼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오는 4월 공개되는 ACC킬러 콘텐츠다. ‘박씨 부인전’을 모티브로 제작되고 있는 ‘REX’ (가칭)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액션 판타지다. 컴퓨터그래픽과 입체영상, 전통기예, 동양무술, 서커스 등 복합기술이 결합된다. 이를 위해 문화전당은 극장1을 입체형 무대로 개발하고 있다. 작품은 오는 4월 쇼케이스를 연 뒤, 12월부터 상설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밖에 태권도, 판소리 등 전통이 어우러진 공연뿐 아니라 ‘소쇄원’ 등남도 문화와 인도 ‘통고난’ 같은 아시아 건축을 가상 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도 마련된다.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기에 맞춰 무대에 올릴 작품도 5월에 시연된다. ‘나는 광주에 없었다’를 내년 본 공연에 앞서 올해 5월 중에 공개한다.

아울러 아시아와 지역을 소재로 한 작품도 창작된다. 타고르의 희곡을 소재로 한 공연 ‘레드 올랜더스’와 2018년 ACC 광주스토리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시간을 찢는 남자’가 무대에 오른다.

문화전당은 또한 문화예술 창·제작이 효율

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도 강화한다.

지난해 5개로 운영되던 창·제작 랩(Lab)을 올해는 인터랙션 퍼포먼스(공연예술과 문화기술 융합), 적정기술(자연에너지, 업사이클링), 푸드테크(음식과 기술을 결합한 주제성 전시) 등 5개를 더해 10개로 확대한다.

통합 레지던사인 ‘ACC-R’의 운영도 확대 개편한다. 콘텐츠 개발 지원뿐 아니라 생산, 유통, 연계상품까지 이어지도록 연계한 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국내외 160명이 참여해 공연 9중, 전시 3중, 문화상품 6중 등 총 35중 결과물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5월부터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이등식 무대차량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인다. 대회 기간에는 대형 로보틱스, 입체음향 레이저 쇼 등을 접목한

융합 퍼포먼스와 판소리 수궁가를 모티브로 한 멀티미디어 음악극 ‘드라곤 킹’ 등을 펼치고, 아마추어 및 동호회가 참가하는 마스터즈 대회 기간에 월드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해할 예정이다.

ACC의 미래를 향한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어린이문화원은 4월 어린이체험관 다목적홀에서 VR콘텐츠를 선보이는데, RC가 체험과 텔레프레젠텐스의 4차 산업기술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도록 구성했다.

또한 옛 전남도청 기역을 돌아보는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민주평화교류원을 5월부터 6월까지 임시 개방하고 이 기간 중에 ‘사물의 기억’, ‘오월스토리 퍼즐’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늘릴 예정이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8월 열린 ‘9회 ACC월드뮤직페스티벌’.

〈광주일보 자료사진〉

## 폭력적 세계에 저항하는 문학의 윤리 묻다

나주출신 백은하 작가 ‘의자’ 펴내

“소설을 쓰는 일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기록하는 일이다. 신앙이 깊어지듯이 문학에 대한 신념도 깊어진다. 글쓰기를 계속하면서 세상을 읽는 통찰력을 더 기르고 싶다.”

나주 출신 백은하 작가가 이번에 펴낸 ‘의자’ (문학들)는 폭력적인 세계에 저항하는 문학의 윤리를 묻는다.

이번 작품집에는 표제작인 ‘의자’ 외에도 ‘마음의 얼음’, ‘햇빛 모으기’, ‘탐조동’ 등 모두 열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작가는 세계의 폭력 속에서 갇히듯 살아가는 도시민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남편과 이혼하고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호루스와 폭행과도 같은 섹스를 하면서 결국 그의 아이를 갖게 된 채팅의 이야기(‘마음의 얼음’), 1950년대 특정 사건을 소환해 폭력을 고발하는 이야기(‘귀향’) 등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소설 속 인물들은 “멀리 있는 불빛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둠 속을 뚫고 걸어가는 사람”(‘탐조동’)처럼 일상의 가치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송민우 문학평론가는 “세상은 폭력적이다.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소설을 통해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백은하의 이번 소설집에 실린 소설들이 지니고 있는 이야기의 울림을 느끼게 될 독자라면 그 희망의 가능성에 대해서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한다.

한편 백 작가는 1996년 일간스포츠 신춘대중문학상에 소설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지금까지 소설집 ‘무지개는 왜 검은 색이 없을까요?’, ‘별의 시간’과 장편 ‘블루칩시티’, ‘마녀들의 입회식’ 등을 펴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극장 20일 ‘버블 패밀리’ 마민지 감독과 대화



마민지(오른쪽) 연출 ‘버블 패밀리’

광주극장이 오는 20일 오후 3시 20분 다큐멘터리 ‘버블 패밀리’를 개봉하고 마민지 감독과 대화를 진행한다.

지난 2017년 광주여성영화제 상영작이기도 했던 ‘버블 패밀리’는 같은 해 국내 작품 중 처음으로 EBS국제다큐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인 마 감독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본 IMF 외환위기를 다뤘다. 지난해 11월에는 1997

년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한 비공개 대책팀의 이야기를 다룬 ‘국가부도의 날’이 개봉해 375만 관객을 모았다.

‘버블 패밀리’는 부동산 투자에만 관심을 보이는 부모님과 그런 부모님이 싫어 집을 나온 감독 자신의 톨라코스터같은 거주기를 담고 있다. 이날 열리는 감독과 대화는 독립서점 소년의 서 운영자인 임인자 문화기획자의 사회로 진행된다. 12세 관람가.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남원’ 지난 주말, 광주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쯤 달리자 돌계이트입구의 대형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고전 소설 ‘춘향전’의 무대로 잘 알려져서일까. ‘대표문화도시’라는 타이틀이 내겐 왠지 억지스럽게(?) 느껴졌다. 사실 기억 속의 남원은 10년 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 그 시절,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들른 남원은 관광루 이외는 특별히 ‘행거 볼 곳’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남원시내를 둘러 본 후 생각이 바뀌었다. 아니, 남원에 대한 나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실감했다.

그 시작은 춘향테마파크 안에 들어

적이다. 2층 규모의 노출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은 건물 자체가 ‘작품’인 모던한 분위기가 압권이다. 공중에 떠 있는 듯한 2층 전시실과 미술관 입구까지 이어지는 계단식 공간은 마치 남도 바다의 갯바위나 들녘의 논을 연상시킨다. 실제로 여름시즌에는 물을 끌어 들여 호수위에 미술관이 떠 있는 듯한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한다. 불과 개관 1년 여 만에 3만 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하니 남원시의 문화브랜드로 불릴 만 하다.

지난해 가을, 경주솔거미술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근래 천년고도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핫플레이스는 2015년 문을 연 경

## 아트관광이 ‘핫한’ 까닭은

선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김병중 미술관)이었다. 김병중미술관은 ‘화첩기행’으로 유명한 남원 출신의 한국화가 김병중 화백(서울대 미대 명예교수)의 삶과 예술을 기리기 위해 그의 작품 400여 점과 5000여 권의 서적, 원고를 모태로 지난해 3월 개관한 곳이다. 춘향제와 광한루에 의존한 ‘올드(old) 콘텐츠’에 관광객들의 관심이 사들여지자 남원시가 문화관광의 아이콘으로 활용하기 위해 끈질긴 러브콜 끝에 유치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김병중미술관은 남원시의 ‘플랜’대로 남원의 역사문화유적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전국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미술관을 찾던 날, 삼삼오오 인증샷을 찍기 위해 몰려든 인파에서 미술관의 ‘성공’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김병중미술관은 ‘가메라에 담고 싶은’ 독특한 외관이 인상

주솔거미술관이다. 김병중미술관처럼 솔거미술관 역시 경주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 자리하고 있다. 인근의 역사유적지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다. 경주 출신 소산 박대성 화백의 기증품이 소장된 미술관은 건축가 송호상씨가 설계한 천지연적인 건축이 특징이다. 특히 바깥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벽면 한쪽을 통유리창으로 낸 제3전시실, 일명 ‘움직이는 그림’은 관광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솔거미술관의 ‘대표작’은 다른 4년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매달 평균 400여 명이 다녀간다고 하니 이보다 더 ‘핫한’ 곳도 드물 듯 하다.

‘잘 만든’ 미술관은 여행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로망이자 도시의 브랜드이다. 위라벨(일과 삶의 균형) 시대, 아트관광에 대한 지자체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18일까지 미디어 강사 모집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오는 18일까지 미디어 강사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사회(상설)미디어 교육, 학교미디어교육, 미디어체험 등 3개 분야로, 미디어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관련학과 전공자, 미디어교육 유경험자, 미디어교육 지도자 자격 보유자는 우대받을 수 있다. 사회미디어교육은 동영상·라디오 콘텐츠 제작, 사진 활용, 뉴미디어(드론,

VR, 1인미디어) 등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법을 계층별·수준별로 선택해 배울 수 있는 지역민을 위한 미디어교육이다. 신청서는 센터 홈페이지(kcmf.or.kr /com/gwangju/)에서 내려 받아 전자우편(gjc@kcmf.or.kr)으로 내면 된다. 센터는 서류전형과 면접 및 강의시연을 거쳐 이달 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062-650-033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그 집 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흥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흥2중)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합,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씨브웨이 광주충장로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곡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장어), 샤브샤브 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국수나무옹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루팡닭강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

**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아맨션 건너편)

☎062)251-8400